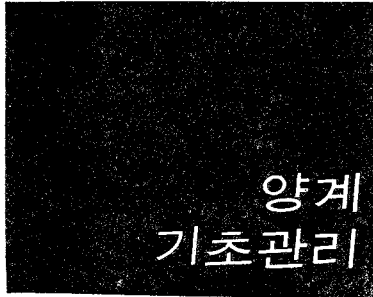


◎ 연재 6 회 ◎



유 한 등  
 <경북축산판매부장>

### 6. 부로일러 사양관리

한 군의 부로일러는 능력의 차이가 나는것이 대부분으로 후천적 영향에 의하여 유전적인 소질을 충분히 발휘시키기 위하여 환경조건을 맞추어 주는 것이 사육관리의 요점이다.

대개의 경우 유전적인 형질은 질적형질(質的形質)과 양적형질(量的形質)로 구분된다.

질적형질은 털색 피부색 벃의 형(冠形) 등을 말하며 이것은 어떠한 사육 환경에도 일정한 형태를 나타낸다. 하지만 양적형질은 발육속도 사료요구율 등을 말하며 이것은 환경 조건에 따라 그 유전능력의 표현에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양적인 형질이 부로일러 사육의 경제성에 대부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로일러 육성에 적합한 환경조건을 맞추어 주므로 부로일러 초생추가 갖고 있는 유전적인 능력을 최대로 발휘시켜 주는 일 즉 관리를 철저히 해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 1) 부로일러 사양관리의 요점

부로일러 육성에 있어서는 한번 그 성적이 떨어지면 그 성적을 회복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다.

채란계의 사육기간은 장시간이나 부로일러 사육기간은 단기간으로 절대 육성기간이 짧으므로 서 한번 성적이 떨어지면 떨어진 성적을 회복시키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채란계 육성은 강건(強健)한 닭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어 다소의 스트레스는 허용될 수 있지만 부로일러 육성은 단기간 동안의 발육과 증체가 목표가 되므로 절대로 전 사육기간동안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부로일러사육은 연속육추를 하므로 해가 거듭될수록 육성율과 발육속도가 저하되는 현상이 있다. 따라서 새로운 병아리를 입추하기 전 철저한 소독을 한 다음 약 2주동안의 유휴기간을 두어야 한다

장기적인 연속육추는 필연적으로 병균의 침입을 가져오며 따라서 성적의 저하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은 우리가 부로일러 농장에서는 어디서나 알아보는 현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일령이 같지 않는 병아리의 직접적 접촉관리를 피하고 기구류 등의 간접적 접촉을 피하며 또한 출하가 완료된 계사를 완전히 소독한 다음 2주일 정도 쉬었다가 육추하는 등 관리면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우기 이러한 조처는 사

육수수가 많아짐에 따라 병균에 의한 계사의 오염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확대시키지 않는 관리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부로일러 경영에 있어 성공의 비결은 스트레스를 방지하는 관리방법이다.

인간사회에 흔히 언급될 뿐 아니라 축산전반의 일상용어로 쓰여지는 「스트레스」란 「심리적 육체적 압박감」 「생리적인 무리」를 총괄하는 뜻으로 이 스트레스는 가축의 경제능력을 저하시키게 되므로 축산경영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 부로일러육성에 있어 스트레스를 분리하여 보면

◎ 강한 스트레스에는

- ① 각종 질병의 발생
- ② 월령, 계통이 다른 부로일러의 접촉
- ③ 모이통이 부족하거나 모이통 배치가 나빠서 닭이 느끼는 공복감.
- ④ 물통이 적거나 물통 배치가 나빠서 닭이 느끼는 갈증.

◎ 병아리의 밀집

◎ 유독물(有毒物)의 섭취 등이 있고

◎ 보통 스트레스에는

- ① 부로일러 수송중의 과열과 냉각.
- ② 병아리 첫모이 주는 시간의 지연.
- ③ 불결한 깔짚.
- ④ 기생충의 기생.
- ⑤ 육추기간중의 고온과 저온.
- ⑥ 각종 예방접종
- ⑦ 급격한 온도의 변화.
- ⑧ 과도한 건조 등이 있고

◎ 약한 스트레스에는

- ① 종계의 영양 부족
- ② 부리 자르기
- ③ 닭 잡기
- ④ 이사한 소리 또는 기타 자극 등이 있다.

이상한 스트레스는 일반관리를 변경하기 전에 스트레스 약제를 투여하여 예방하는 예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방법은

- ① 오염의 배제
- ② 소독의 철저

③ 격리

④ 육성 환경조건의 철저한 관리를 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부로일러 경영의 성공 조건이다.

2) 부로일러의 실제관리

부로일러 관리는 본고 4장 「육추 및 육성관리」와 같은 관리를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참작하기 바란다.

그러나 부로일러양계에 있어 특히 강조하고 싶은 점이나 또는 특수한 관리만을 들어 4장에서 기술한 항목에 첨부하여 보고자 한다.

(1) 사육밀도

평균체중 1.6kg의 부로일러를 기준으로 할 때 여름철에는 930cm<sup>2</sup>당 1마리(평당 35마리) 겨울철에는 745cm<sup>2</sup>당 1마리(평당 45마리)를 수용한다.

우리나라 부로일러 양계관리에서 가장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고 있는것이 이 사육밀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평당 마리수가 너무 많아 밀집한 상태에서의 닭은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것은 더우기 장기간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예가 많아 부로일러 발육과 성장율을 심히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질병발육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사육밀도가 높으면 체사율의 증가와 우모발생상태가 나빠질 뿐 아니라 사료 손실량이 많아진다. 시험결과에 의하면 평당 70마리 수용할 때는 35마리 수용할 때보다 8주동안에 23g의 사료 손실을 가져 온다는 보고가 있고 등허리 털이 벗겨진 닭이 20%나 더 많이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다.

사육밀도의 조절관리는 부로일러 양계의 가장 기초적인 것일 뿐 아니라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것으로 앞으로 우리 부로일러 양계가는 사육 밀도에 보다 철저한 관리를 기울여 주기바란다.

(2) 계사 준비 작업

계군의 완전한 출하후 건물과 기구의 청소. 물로 닦기, 소독을 실시하고 2주일간의 휴식기간을 두며 10~15cm 두께로 새 깔짚을 깔아준다.  
출입자는 매번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소독판과 소독술을 준비해준다.

(3) 입추 초기 관리

깔짚 위에 두꺼운 종이를 깔고 그 위에 사료를 뿌려준다. 샷갓육추기 언저리에서 60cm 떨어져 칩크가드(병아리울타리)를 쳐준다.  
육추 온도는 32°C를 유지하여 주어야 하며 이때의 온도계 위치는 샷갓 육추기 언저리에서 15cm 떨어진 곳에 온도계 밑이 바닥에서 5cm 위에 위치하도록 한다. 온도는 육추기간 동안 매주 2.8°C 씩 낮추어 주며 5주이후의 계사온도는 최저 15.5°C 최고 25°C의 범위로 조절해 주어야 한다.

(4) 습 도

습도는 관계 습도 60% 내외가 적합하며 입추 1주간 또는 병아리가 약할 때는 75%로 맞추어주는 것이 좋다. 때때로 물을 뿌린대신 하여 습도를 높혀줄 경우가 있는 데

- ① 겨울철 공기가 건조할 때
- ② 외기의 습도가 낮을 때(청명한 날 또는 이상 건조의 경우)
- ③ 부로일러 전용계의 경우

습도가 낮은 경우에는 식욕이 감퇴되고 병아리 날개가 잘 부러지고 정경이에 비듬이 생겨 발육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기생충, 원충, 세균 등의 발육을 조장하여 각종 병해 발생의 기회가 많아져 2차적인 피해가 오기 쉽다.

(5) 급수기 관리

입추 5일간은 100수당 5리터 원통형 급수기 1개를 놓아 주며 그 이후 2-3일간은 유추용 급수기와 중추용 급수기를 병용하다가 1주일 이후부터 중추용 급수기로 완전히 대처한다. 물통은 병아리가 물을 먹기 위해 3m 이상 걸어가지 않는 거리에 배치하여야 한다.

물은 항상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1일 2회정도 갈아주도록 하고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맑은 사료섭취량의 2배에 해당하는 물을 섭취하며 충분한 물의 공급은 사료효율과 발육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6) 급이기 관리

출하체중 1.7kg 표준으로 1000마리당 원통형 사료급이기의 경우(50수당) 20개, 122cm 길이의 봉상급이기(깊이 9cm) 20개를 놓아 주어야 한다.  
급이기의 높이는 급이기 윗 모서리가 닭의 등높이로 놓이도록 높혀 주어 사료 손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원통형 급이기는 통의 1/3 이상 사료를 넣지 말고 봉상급이기는 1/2 이상 사료를 넣지 않도록 하여 사료 손실을 방지하도록 한다.

사료통의 부족은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시켜 질병발생을 촉진하며 발육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급이기는 충분한 수를 확보하고 계사 구조에 따라 잘 배치하여야 한다.

부로일러 양계에 있어 사료비는 전체경영비의 70%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료통의 관리의 그만큼 중요한 관리요인이 된다.

급이기를 바닥에 놓아둔 것은 등높이로 조절 관리한 모이통에 비하여 450g의 사료 손실을 가져오며 급이기에 사료를 너무 많이 넣어 두는 것도 사료손실을 가져온다.

필자는 사료통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스트레스의 예방, 사료손실의 방지를 꾀하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여 둔다.

(7) 점등관리

하루 14시간의 조명시간을 유지하면 된다. 입추 1주일간은 암사방지를 위하여 종야 점등을 해주는 것이 좋다.

여름철 몹시 더운 날에는 오전 3시부터 점등을 하여 사료섭취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점등의 밝기는 0.27m<sup>2</sup>당 1와트, 1000수당 7~15와트의 밝기로 해주고 전등은 항상 깨끗이 관리하도록 한다.

●양계 기초 관리●

(8) 부리 자르기

부화직후 또는 입주후 7~10일령에 부리의 상하 1/2를 잘라 주므로 악벽방지, 사육계군의 증가, 사료효율의 개선 등의 효과를 얻는다.

(9) 도 태

설사, 혈변을 누는 병아리, 모이를 먹지 않는 병아리, 웅크리고 있는 병아리, 악벽, 약한 병아리 등은 그때 그때 잘 관찰하여 도태하여 주므로 질병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10) 사료섭취량과 발육의 점검

관리기간 동안 사료섭취량과 발육정도를 매주 점검하여 건강 및 관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각 품종에 따라 부화장에서 제시하는 사료섭취량 및 표준발육속도를 매주 확인하므로 사양관리를 점검하여야 한다.

부로일리(중중) 발육속도와 사료요구율

주령	체중	사료요구율
1	88.0g	1.20
2	187.5	1.30
3	330.0	1.42
4	541.5	1.55
5	792.0	1.65
6	1,056.4	1.75
7	1,330.0	1.87
8	1,594.5	2.01
9	1,859.0	2.15
10	2,125.0	2.28

超強力  
醱酵原菌

네오·모가루菌

日本菌体飼料協會 顧問  
네오·모가루菌製造元 顧問  
強力醱酵 오노라제製造元 顧問  
正花鷄園 顧問

위 顧問인 大野俊夫先生の  
指導下에 1972년부터  
本鷄園菌体飼料研究所에서  
原菌을 製造케 되었음. (菌名未定)

- 특징
1. 사료비 대폭절감
  2. 血液을 中和시키고 體質改善함.
  3. 育成率 生存率을 높임.
  4. 抗粘性物質作用에 의해 有害한 病原菌을 殺菌함 (마레크, 크라이자, CRD, 特效)
  5. 발효처리 건조로 장기저장함.

한국총판 正花鷄園

※ 地方代理店 募集함.  
但 양계경영자에 限함.

서울특별시 성동구 둔촌동26-2 TEL. 55-2829  
서울·성동사서함41호 대체구좌 서울 1346번